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3호 [국제 제25306호] 주제 105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시었다와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필리핀 지천주 뉴비 모 집미고해방전선당 위원장, 조세프 까인라 대령과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아르델아지즈 부페 클라카 알레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유제 에우아르두 무스캄푸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요제프 키구아 무세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인 우간다국립혁명운동 위원

장, 아브돌라 카르모 알 피씨 에리트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에서 뜨거운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어온 마르무드 아메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맞이하여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공산당

위원장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7일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받으면서 축하 말씀을 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안남도 용천군 용천읍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체육기구를 생산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추구해 나가기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체육강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용천읍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체육중시 기풍이 시고 체육업계가 전열되어 나가기에 이르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인들속에서 훌륭한 경기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데 맞게 세계적수준의 체육기구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줄데 대하여 중요시 언급하시었다. 중국, 인공공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친친필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 사설 200일전투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기관이며 대중을 당정책관행으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정원이다. 일군들에 의하여 당의 구상과 결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나고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되게 된다. **본사기자**

우리의 혁명적업무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본사기자**

일군들은 당의 핵심기관이며 대중을 당정책관행으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정원이다. 일군들에 의하여 당의 구상과 결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나고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되게 된다. **본사기자**

##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 200여세대의 살림집골조 형성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이 200일전투장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이 200일전투장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이 200일전투장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이 200일전투장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여러동의 골조공사 완성이 200일전투장에서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야영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

당에서 야영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당에서 야영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당에서 야영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당에서 야영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당에서 야영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 총정의 200일전투의 보람찬 열흘이 흘렀다,

## 정론 용감한 돌격투사가 되었다

조국은 지금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내달린다.  
모두다 200일전투에!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총공격전으로 부른 당의 피끓는 호소에 천만심장이 격동하고 온 나라가 거창한 투쟁의 전후가 화하였다.  
아마도 지금까지 민심이 당으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다.  
이 땅을 둘러보라, 마치 기다리거라도 한듯 천안이 일시에 들고 일어났다.  
거대한 혁명의 화산대를 이루고 밤낮없이 창조와 기적의 열풍을 내뿜는 혁명적건설장, 여기서는 붉은기가 그제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면서 날린다. 수많은 붉은기들이 하루 지어는 스무시간도 채 안되는 사이에 한층더욱 솟아오르는 살림질조를 따라 오르고올라 건설장성공의 여기저기에서 기적의 포대로 뿜어져 나온다. 어둠을 불사하며 연속 투쟁하는 용감한 돌격, 하늘땅을 뚫어놓는 경제건설의 대이레에 자연의 밤도 물러가고 지면 해도 다시 솟아오른다.

4대선명부문의 장교도 또한 간단치 않다. 최고의 실적, 최대의 성과로 200일전투에서 남다른 총공격을 부른 기세로 전역공무원들의 모용제급이 생산적일당의 불길을 일으키고 판전은 판전대로 식탄폭포를 뿜어내었다.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돌격전에서 주체적건설의 승결과승은 황천인물 아래 뒤집어 놓는 대의의 마수를 높이 든 대인들이며 더 높은 창조와 이성을 버리지 않았다.  
말만 들어도 누가 번쩍 뜨이는 지휘요령에 의한 소급생산을 예고하고 드넓은 협동농장마다에선 파랑농민 꽃피우니 벌써부터 포기마다 만물들이 낱실내신 싹들이 농업근로자들이 너도나도 일손에 붙을 달았다.  
거대한 지열을 안은 용암이 리저로 흐르는 나라가 무섭게 질주하는 기상으로 승리는 벌써 지척에 외닿은 것만 같다.  
강산을 전갈하는 이 기세와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는 벌써 승리하였다.》일 것이다.  
조선은 그야말로 만리마속도로 역세 내뿜는 힘은 우주만물에 단숨에 추구를 촉발시킨 마력을 날렸고 있다.  
격전의 70일을 세번 더한것과 맞먹는 200일전투, 더 멀고 험준한 전투에 리피마를 붙여가며 뛰어들었던 열흘마다 넘치는 것은 백배의 신심이며, 전승마다 돌진하는 더 큰 비약의 내력이다.  
무엇이었는가, 천만의 가슴에 라면지는 끝없는 공격전의 불길, 날이 갈수록 용용의 샘솟는 이 힘과 용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지금도 눈앞에 이르려는 력사의 소중한 화풍이 있다.  
당 제7차대회의 웅대한 강령을 받아 안고 끝없는 환희를 위하여 설비하는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새 희망을 던져 주시며 지금껏 소문없던 모진산소공장 건설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벌써부터 체모가 확연히 인격으로 풍광의 전경에서 보다 광활로운 조국의 레일을 내다보시며 그이께서는 얼마나 확신에 넘치 말씀하시었는가.  
온 나라 천만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내달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격투쟁을 위하여! 200일전투에 전일하게 된다! 하시며 만리마속도로 불길드높이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야흐로 리저에 펼쳐 새로운 전투의 열풍과 같았다. 가야 할 투쟁의 길을 밝히는 해발처럼 단거와 인민의 마음에서 승리의

안성이 터져나오지 않았는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격투쟁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200일전투의 자랑스러움이며 바로 여기에 오늘의 전투가 가지는 역사적의의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공격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함하여 세계를 주먹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과시하라 하십니다.》  
혁명과 돌격투, 이는 때때로 필수 없는 하나의 부름과도 같다.  
혁명은 단단대로가 아니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면 그 승승장구의 언덕마다에는 뿜고헤쳐야 할 돌격투사가 있다.  
돌격투사라 하면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이하고 또 끈기 있는 것이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가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민간인민들의 승리를 성취하는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오늘의 200일전투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격전이다. 당 제7차대회의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한 총정의 첫 전투, 최후승리의 전격투쟁을 위하여! 200일전투에 전일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공격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함하여 세계를 주먹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과시하라 하십니다.》  
혁명과 돌격투, 이는 때때로 필수 없는 하나의 부름과도 같다.  
혁명은 단단대로가 아니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면 그 승승장구의 언덕마다에는 뿜고헤쳐야 할 돌격투사가 있다.  
돌격투사라 하면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이하고 또 끈기 있는 것이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가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성스러운 5월의 당대회장에서 그이께서 다지신 심정의 맥락은 그대로 오늘의 우리 시대 인간들이 간직해야 할 고귀한 인생관, 삶의 포대로 되고 있다!  
이 한문을 아낌없이!  
실사 용이 쫓기고 쓰러진다 해도!  
정명 우리 원수님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앞장에서 돌파해나가는 위대한 선구자이다.  
힘난하고도 영광스러웠던 지난 4년세월 우리가 우려리었던 그이의 모습이 언제나 그러했다.  
최근, 12월의 그 최후돌격의 열풍을 잊을 수 없다.  
이 나라 인민이 겪어야 했던 시련중에 대담을 잃은 그 이름보다 더 큰 시련이 또 어디 있었는가.  
그대로 주저앉았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 원수님 리저신 심정의 호소!  
장군님을 잃은 슬픔을 눈물로 어떻게 가시겠는가, 우리는 불적나발을 불린 새해전투에 힘차게 불어넣어 주고 있다. 혁명적 투쟁을 위한 장군님의 용혼 투쟁을 위하여! 200일전투에 전일하게 된다!  
그렇게 억척같이 싸우시는 길에서 미제의 핵공격소동을 정의의 핵포화로 단호히 처결하시었고 원수들이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걸음이 둘러치던 자강력의 보검을 주저 않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셨다.  
그이께서 있어서 난관돌파전이자 곧 만반이냐는 공격전이었다.  
어느 한 시인도 노래했듯이 그이 가시는 길에는 안내자가 따로 없었고 그이 리저는 시련의 정맥을 앞장에서 뿜고나가는 선두자였다. 정명 그 길에는 인민이 아닌 길보다 모르는 길이 더 많았었고 그이께서 떠맡으신 혁명의 중하는 열미였고 그이께서 통과하신 험준한 력사의 선악, 시련의 《화풍》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이께서 얼마나 간고저항했으면, 그렇게 값비싸게 정취한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지나온 나날을 추억하시며 희생과 고생과 슬픔을 다 합쳐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끝없는 돌격전으로 이루지 못한 기적이 없었고 이 조국을 세계가 우려리었던 열마루에 우뚝 올려세우셨던 오늘 또다시 실사 용이 쫓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실패 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신할것을 맹약한다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원수님이다.

조국을 만드는 깨끗한 땅이다.  
오늘 내가 기록한 100%, 200%의 실적을 전정 당을 만드는 깨끗한 땅으로 총화할 수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생각하면서 질을 소홀히 한적은 없는가를 따져가며 많은 일에 전심을 바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순간의 총동으로서는 전진을 못 가고 언제 가도 위훈의 앞자리에 서지 못한다.  
항일의 김진영용이나 진화의 육만영용들이 그 누가 시켜서 원수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어놓았는가.  
그것은 실정의 명명, 스스로 걸머진 의무였고 땅이었다.  
실사 조국에 싸우다 남모르게 불탄데도 더 버틸것이 없다는 고결한 신념, 언제 나 어렵고 힘든 일은 양보할수 없는 나의 용으로 때마침은 후진력이 혁명가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 명랑한 판의 판부들처럼 뜻밖에 봉착된 마당에서도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다른 열마라도 판을 더 깨어 조국의 보물을 주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 뿌려지는 땅의 진한 명망은, 그것은 결전의 언덕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평범한 날에 남모르게 고요한 그 땅심이 바로 존엄한 날에는 총련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들의 위훈은 그대도 당중앙에 드러는 꽃다발이 되고 우리 당원들의 긍지높은 전투기록이 된다.  
우리는 산 병마들이 오를수록 길은 더욱 가파르고 비탈은 더욱 세차다.  
총리의 명마들이 가파른속으로 원수들의 발목을 잡아당길것이지만 당의 무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조선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힘들다 주저없이 말고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우리가 마른 땅만 풀가리면 조국이 전진할것을 절제 되고 그만둘 혁명의 전진이 퍼져서 되기에 누구도 신념을 흔들 수 없다. 정명 그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우리가 마른 땅만 풀가리면 조국이 전진할것을 절제 되고 그만둘 혁명의 전진이 퍼져서 되기에 누구도 신념을 흔들 수 없다. 정명 그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1974년의 70일전투!  
말만 외워도 강산을 전갈하던 혁명의 목소리가 귀를 뚫어 울리는 것만 같다. 그것은 불가늠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기적이었다.  
전투가 벌어질 당시 나라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원료와 자재의 부족, 수송의 긴장상태 등으로 하여 그해 연간계획수행의 전망을 낙관할수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이런 긴장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구상하신 돌격투에 바로 70일전투였다. 세상을 놀래운 투쟁은 돌격전의 열풍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후회와 좌절이 아니라 속도전의 내력을 활짝 펴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성기를 환희롭게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의 문필가들이 《이해는 사면도 많고 통분시키는 일도 많다. 대고조의 하루하루는 새 기적, 기쁜 소식의 연속으로 이어지고있다.》고 적힌 2009년, 이해의 사변들은 또 어떻게 태어났는가.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꽃피워놓은 기적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투쟁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들로 하여 2009년은 조국정사에 변이 나는 해로 자랑스럽게 기록되게 되었고 조선혁명은 더욱 눈부신 속력을 안고 질풍같이 전진하게 되었다.  
혁사는 증명해주고있다. 돌격투가 열리면 승리의 대령과 열리고 돌격투가 불어오르면 혁명의 기원자가 벗어선다는 것을, 오늘의 200일전투가 바로 그런 운명적인 격전이다.  
우리의 200일전투는 당 제7차대회의 강령을 추켜들고 떠난 력사의 첫 진군인 동시에 우리 당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 번째의 투쟁이다.  
올해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5개년전략수행의 전도가 좌우되고 나아가서 경제강국건설의 성과가 결정된다.

1974년의 70일전투!  
말만 외워도 강산을 전갈하던 혁명의 목소리가 귀를 뚫어 울리는 것만 같다. 그것은 불가늠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기적이었다.  
전투가 벌어질 당시 나라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원료와 자재의 부족, 수송의 긴장상태 등으로 하여 그해 연간계획수행의 전망을 낙관할수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이런 긴장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구상하신 돌격투에 바로 70일전투였다. 세상을 놀래운 투쟁은 돌격전의 열풍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후회와 좌절이 아니라 속도전의 내력을 활짝 펴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성기를 환희롭게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의 문필가들이 《이해는 사면도 많고 통분시키는 일도 많다. 대고조의 하루하루는 새 기적, 기쁜 소식의 연속으로 이어지고있다.》고 적힌 2009년, 이해의 사변들은 또 어떻게 태어났는가.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꽃피워놓은 기적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투쟁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들로 하여 2009년은 조국정사에 변이 나는 해로 자랑스럽게 기록되게 되었고 조선혁명은 더욱 눈부신 속력을 안고 질풍같이 전진하게 되었다.  
혁사는 증명해주고있다. 돌격투가 열리면 승리의 대령과 열리고 돌격투가 불어오르면 혁명의 기원자가 벗어선다는 것을, 오늘의 200일전투가 바로 그런 운명적인 격전이다.  
우리의 200일전투는 당 제7차대회의 강령을 추켜들고 떠난 력사의 첫 진군인 동시에 우리 당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 번째의 투쟁이다.  
올해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5개년전략수행의 전도가 좌우되고 나아가서 경제강국건설의 성과가 결정된다.

민간인민들의 승리를 성취하는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오늘의 200일전투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격전이다. 당 제7차대회의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한 총정의 첫 전투, 최후승리의 전격투쟁을 위하여! 200일전투에 전일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공격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함하여 세계를 주먹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과시하라 하십니다.》  
혁명과 돌격투, 이는 때때로 필수 없는 하나의 부름과도 같다.  
혁명은 단단대로가 아니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면 그 승승장구의 언덕마다에는 뿜고헤쳐야 할 돌격투사가 있다.  
돌격투사라 하면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이하고 또 끈기 있는 것이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가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민간인민들의 승리를 성취하는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오늘의 200일전투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격전이다. 당 제7차대회의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한 총정의 첫 전투, 최후승리의 전격투쟁을 위하여! 200일전투에 전일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공격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함하여 세계를 주먹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대를 힘있게 과시하라 하십니다.》  
혁명과 돌격투, 이는 때때로 필수 없는 하나의 부름과도 같다.  
혁명은 단단대로가 아니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면 그 승승장구의 언덕마다에는 뿜고헤쳐야 할 돌격투사가 있다.  
돌격투사라 하면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이하고 또 끈기 있는 것이다. 혁명이 최후승리에 가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승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가 된다.

조국을 만드는 깨끗한 땅이다.  
오늘 내가 기록한 100%, 200%의 실적을 전정 당을 만드는 깨끗한 땅으로 총화할 수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생각하면서 질을 소홀히 한적은 없는가를 따져가며 많은 일에 전심을 바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순간의 총동으로서는 전진을 못 가고 언제 가도 위훈의 앞자리에 서지 못한다.  
항일의 김진영용이나 진화의 육만영용들이 그 누가 시켜서 원수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어놓았는가.  
그것은 실정의 명명, 스스로 걸머진 의무였고 땅이었다.  
실사 조국에 싸우다 남모르게 불탄데도 더 버틸것이 없다는 고결한 신념, 언제 나 어렵고 힘든 일은 양보할수 없는 나의 용으로 때마침은 후진력이 혁명가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 명랑한 판의 판부들처럼 뜻밖에 봉착된 마당에서도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다른 열마라도 판을 더 깨어 조국의 보물을 주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 뿌려지는 땅의 진한 명망은, 그것은 결전의 언덕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평범한 날에 남모르게 고요한 그 땅심이 바로 존엄한 날에는 총련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들의 위훈은 그대도 당중앙에 드러는 꽃다발이 되고 우리 당원들의 긍지높은 전투기록이 된다.  
우리는 산 병마들이 오를수록 길은 더욱 가파르고 비탈은 더욱 세차다.  
총리의 명마들이 가파른속으로 원수들의 발목을 잡아당길것이지만 당의 무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조선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힘들다 주저없이 말고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우리가 마른 땅만 풀가리면 조국이 전진할것을 절제 되고 그만둘 혁명의 전진이 퍼져서 되기에 누구도 신념을 흔들 수 없다. 정명 그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조국을 만드는 깨끗한 땅이다.  
오늘 내가 기록한 100%, 200%의 실적을 전정 당을 만드는 깨끗한 땅으로 총화할 수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생각하면서 질을 소홀히 한적은 없는가를 따져가며 많은 일에 전심을 바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순간의 총동으로서는 전진을 못 가고 언제 가도 위훈의 앞자리에 서지 못한다.  
항일의 김진영용이나 진화의 육만영용들이 그 누가 시켜서 원수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어놓았는가.  
그것은 실정의 명명, 스스로 걸머진 의무였고 땅이었다.  
실사 조국에 싸우다 남모르게 불탄데도 더 버틸것이 없다는 고결한 신념, 언제 나 어렵고 힘든 일은 양보할수 없는 나의 용으로 때마침은 후진력이 혁명가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 명랑한 판의 판부들처럼 뜻밖에 봉착된 마당에서도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다른 열마라도 판을 더 깨어 조국의 보물을 주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 뿌려지는 땅의 진한 명망은, 그것은 결전의 언덕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평범한 날에 남모르게 고요한 그 땅심이 바로 존엄한 날에는 총련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들의 위훈은 그대도 당중앙에 드러는 꽃다발이 되고 우리 당원들의 긍지높은 전투기록이 된다.  
우리는 산 병마들이 오를수록 길은 더욱 가파르고 비탈은 더욱 세차다.  
총리의 명마들이 가파른속으로 원수들의 발목을 잡아당길것이지만 당의 무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조선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힘들다 주저없이 말고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우리가 마른 땅만 풀가리면 조국이 전진할것을 절제 되고 그만둘 혁명의 전진이 퍼져서 되기에 누구도 신념을 흔들 수 없다. 정명 그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것을 외치고 돌아오지 말자, 투쟁은 계속되고 승리는 앞에 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투원동이어! 밤낮이 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모두다 당의 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기 위하여!



-청진제강소에서-



-대안중기계원합기업소에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부에서-

본사기자 최용국, 임학혁 찍음



-2. 8비남원합기업소에서-



-봉성기계원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원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김진명 찍음















